

요란 떠 경찰 치안정책 슬그머니 폐지

주민 밀착 동네경찰관·여성 귀갓길 서비스 등

인력 등 현실 감안않은 탁상행정예 '유명무실'

구호만 요란한 경찰의 치안 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거창하게 발표해놓고 수장이 바뀌면 슬그머니 축소·폐지하는가 하면, 현장과 맞지 않는 '탁상행정식' 정책으로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경찰관 1300명, 일반시민 1700명으로 블랙가드(Black Guard)를 조직, 민·관 합동 범죄 예방·검거 활동을 벌이

겠다는 정책은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다.

당시 자동차 블랙박스를 보유한 시민 회원들을 끌어들이 범죄 발생시 블랙 박스 영상 자료를 확보, 사건 해결의 단서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관련 정책을 추진했지만 실효성이 없어 폐지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6개월간 운영한 결과, 범죄 해결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 사례가 1건에 불과했고 범죄 발생지 사건 현장의 블랙박스,

CCTV를 들여다보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확인해 지난해 5월 조용히 폐기했다. 해당 정책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내놓았다는 점에서 치안 정책에 대한 불신을 줄만하다.

'주민 눈높이 책임구역제 치안활동(동네경찰관)'도 비슷하다. 경찰 내부에서조차 '사실상 (쓰레기통에) 폐기처분된 정책'이라는 말이 나온다.

지구대(파출소)별 관할 구역을 10~40개로 나누고 책임 경찰관(동네경찰관)을 두고 동네 특성에 맞는 치안행정을 펼친다는 취지로 마련했지만 현장을 무시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터져나와 흐지부지됐다.

동부경찰의 시범 운영을 거쳐 광주 5개 경찰서로 확대됐지만 하루 100건에 이르는 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하기에 바쁜 도심 지구대의 경우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 A경찰관은 "걸어서 순찰 다닐 시간도 없는데 언제 주민을 만나겠느냐"며 "농촌지역 등 치안 수요가 적은 곳과 맞는 정책이지 도심 경찰서와는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전남경찰이 지난 2013년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여성, 아동 안심 귀갓길 서비스' 제도도 구호만 요란했을 뿐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나 다름없다.

목포경찰의 '1004 하룻길 도우미', 해남경찰의 '자율방범대와 함께하는 안심귀가 서비스' 등 여성·아동 귀갓길 치안서비스는 아예 자취를 감춘 지 오래다. 시민들을 상대로 한 치안 서비스지만 홍보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관련 서비스에 대한 실적을 파악하지 않다보니 개선 사항이나 미흡한 점을 알아내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 이름 뿐인 정책이 된 지 오래다.

구례경찰이 지난 2013년 11월 거창하게 내놓은 '전국 최초 고령운전자 실비 표시제 도입' 제도도 사라진 지 오래다.

지역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고령자의 차량과 전동휠체어에 스티커를 붙여 노인 운전자를 알리겠다는 취지지만 교통사고감소나 차량 이동 특성 등을 감안하지 않은 점 등으로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광주·전남 경찰의 상당수 치안 정책이 '유두사미'식으로 내놓는 경우가 잇따르면서 자칫 치안 정책에 대한 지역민들의 불신감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치안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일관성과 지속성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김정호기자 khk@kwangju.co.kr



봄맞이 버스승강장 대청소 5일 오후 광주시 북구 중흥2동 주민센터 직원들과 새마을 부녀회원들이 중흥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지난겨울 내뿜은 먼지를 털어내며 봄맞이 단장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국고보조금 허위로 타낸 직훈기관 무더기 적발

광주경찰 지능수사대, 대리수강 편취 등 117명 입건

국고보조금을 허위로 타낸 직업훈련 위탁교육기관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5일 직업훈련 시간을 부풀리거나 대리 수강을 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직업훈련 위탁교육기관 S평생교육원 대표 김모(46)씨 등 117명을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위탁받아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규정과 다른 방법으로 실시, 5억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 등이 1~2시간만 교육한 뒤 16시간 수강한 것처럼 부풀리는가 하면, 수강생 ID를 도용해 온라인 강의를 대

리 수강하는 방법 등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한 것처럼 꾸며 고용노동부에서 보조금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는 직업훈련을 실시하면서 훈련비 일부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지원받는다.

경찰은 이들 위탁교육기관이 브로커를

동원, 위탁사업장을 모집하고 훈련비 일부를 나눠 가진 것으로 보고 적발된 업체를 노동부에 통보, 부당하게 받은 보조금의 2배를 환수토록 하는 한편, 6개월 동안 직업훈련 수강자격을 박탈하도록 했다.

한편, 광주·전남 지역에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명목으로 지출된 보조금은 138억원(사업장 8051곳·10만17명)으로 전년(120억원·사업장 7941곳·9만6282명)에 비해 15%(18억원) 늘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매일 24면...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권지입니다 ▶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57, 달ตก 19:04, 해질 18:32, 달질 06:56

개구리 잠깨는 '경찰'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질 것이다.

◇지역별 날씨(℃)

광주	구름많음	-2/12	보성	흐림	-3/11
목포	흐림	-1/8	순천	구름많음	0/11
여수	흐림	2/9	영광	구름많음	-4/10
나주	구름많음	-3/12	진도	흐림	-1/9
완도	흐림	-1/9	전주	맑음	-3/11
구례	구름많음	-3/11	군산	맑음	-3/9
강진	흐림	-2/11	남원	맑음	-4/11
해남	흐림	-2/11	홍산도	흐림	1/6
장성	구름많음	-3/11			

◇바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	남해	방향	파고(m)	방향	파고(m)
안바다	안바다	북동~동	0.5~1.0	북~북동	0.5
남바다	안바다	북동~동	0.5~1.5	북~북동	0.5~1.0
남해	안바다(동)	북동~동	0.5~1.0	북동~동	0.5
서부	안바다(서)	북동~동	0.5~1.5	북동~동	1.0~1.5

◇생활지수

수면	60
운동	50
빨래	70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2:33	07:52
	14:58	20:13
여수	밀물	썰물
	09:43	03:26
	21:56	15:41

◇주간 날씨

7(토)	8(일)	9(월)	10(화)	11(수)	12(목)	13(금)
☀	☀	☀	☀	☀	☀	☀
2/14	1/15	2/7	-2/6	-2/9	-1/12	2/12

자사고 지정·취소 교육감 마음대로 못한다

교육부 장관 사전 동의

관련 시행규칙 제정 공포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를 교육감이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됐다. 반드시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5일 초·중등 교육에 관한 부령 9개를 통합해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제정, 공포했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육감은 자사고·특수목적고·특성화중에 대한 지정 신청의 경우 각 학교장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지정 취소의 경우 청문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각각 교육부장관에게 동의를 신청해야 한다.

또 교육부장관의 결정 통보는 2개월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동의 신청서의 보완이나 반례를 요청하도록 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교육감이 자

사고·특수목적고·특성화중을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할 때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주민번호 대체 아이핀 해킹에 뚫려

75만건 부정발급... 정부 시스템 전면 재구축 검토

정부가 주민번호 대체 수단으로 권장한 공공아이핀이 해킹공격에 무너졌다. 정부는 아이핀 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8일부터 2일 오전까지 공공아이핀 시스템이 해킹 공격을 받아 75만 건이 부정 발급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5일 밝혔다.

행자부는 단기간에 급격히 아이핀 발급량이 증가하자 경위를 조사한 결과 해

킹 및 부정발급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부정 발급된 공공아이핀 75만 건 중 17만 건이 3개 게임사이트에서 신규 회원가입이나 이용자 계정 수정·변경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공격은 주민번호를 도용해 정식으로 발급받은 아이핀을 거래한 것이 아니라 아예 시스템에 침범해 공공아이핀을 대거 만들

내내 사용한 것이다. /연합뉴스

200% 할인

아파트 담보대출 및 분양 잔금대출 특별 한시판매

최저 연 3.3%~

상기 금리는 APT담보대출 기준이며, 담보물건 및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근저당권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근린상가 단독주택 나대지 원룸

담보 비율 : 최대 70%
최저 연 3.8%~

신용대출 (급여소득자) (연금수급자)

대출한도 : 최대 5,000만원
상환방법 : 원금균등상환
대출기간 : 최대 5년
연금리 : 최저 7.0%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옆) |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령고등학교 옆)